

새 책

▶방귀학 개론(스테판 게이츠 지음, 이지연 옮김)= 세상 진지한 방귀 교과서다. 방귀는 왜 소리가 나는지, 냄새가 나는 방귀와 그렇지 않은 방귀의 차이는 무엇인지, 동물들도 방귀를 끼는지 같은 의문에 '방귀 박사'인 저자가 답을 내린다. 그 대답을 따라가다 보면 방귀를 통해 인체의 신비로움과 과학의 즐거움을 깨닫게 된다. 해나무, 1만4500원.



▶시간을 걷는 인문학(조지옥 지음)=“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어쩌다 생겨났을까.” 이 책은 '지리샘'인 저자의 궁금증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각의 길을 둘러싼 사건과 사람, 지리적 특징을 이정표 삼아 사회, 문화, 경제, 환경 등을 주제로 인문학 여행을 떠난다. 지리 샘이 던지는 생각거리들이 다양한 관점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듯하다. 사계절, 1만3000원.



▶인류에게 공통의 언어가 있다면(루도비코 라자로 자넨호프 지음, 최만원 옮김)=1887년 폴란드의 의사와 의사인 저자가 국제 공용어 '에스페란토'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13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전 세계 에스페란티스토들은 왜 이 언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까. 질문에 대한 답을 담았다. 유소년 시절 언어와 종족·문화적 차이로 인한 다름과 반목을 겪으며 국제어를 통한 소통과 화해를 꿈꿨던 자넨호프, 그의 사상적 면모도 만날 수 있다. 갈무리, 1만8000원.



▶우리의 미스터 렌(싱클레어 루이스 지음, 김경숙 옮김)=우연히 상속을 받게 된 평범한 회사원 미스터 렌은 여행을 통해 일탈을 꿈꾼다. 그렇다고 흥청망청 쓸 만큼 돈이 많지도 않은 상황. 여행 경비를 줄이려 선박에서 소 치는 일꾼이 돼 떠난 여행에서 예측불허의 일이 펼쳐진다. 그 이야기가 코믹드라마처럼 유쾌하다. 레인보우퍼블릭북스, 1만2000원.



▶지름길은 필요 없어(정혜원 지음)=다문화 가정의 아이인 하늘이는 “아무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주문을 걸며 지름길을 걷는다. 동네는 물론 학교에서도 따라 다니는 무시와 차별 때문이다. 이 책은 하늘이에게 지름길이 필요 없어지는 세상을 꿈꾼다.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곳을 만들기 위해 학교 선생님과 친구, 마을 사람 모두가 차별과 편견을 인지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담았다. 머스트비, 1만800원.



▶한눈파는 아이(손택수 지음)=시인의 첫 동시집이다. 그 안에 어린 화자는 걸핏하면 야단맞고, 창밖으로 한눈파는 말쑥꾸러기이지만 솔직하게 제 마음을 긍정하고 자연을 사랑할 줄 안다. 속 깊은 그 아이에게 시인은 다정한 시어로 응원을 건넨다. 자기 자신을 긍정하게 하는 시어들은 어린 독자들에게도 용기를 불어넣는다. 창비, 1만800원. 김지은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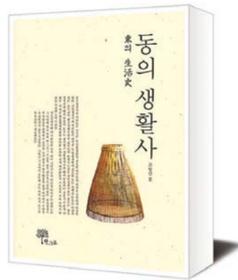
# 백두대간 동쪽 흥두개, 그 흥두개가 아니다

## 제주 민속학자 고평민의 '동(東)의 생활사'

### 농업·도구·언어 생활사 문화 다양성 함몰 경계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2004), '제주 생활사'(2016) 등 '필드 노트'를 기반으로 제주 민속을 저 밑바닥까지 캐냈던 그의 저서 '한국의 바구니'(2000)처럼 일찍이 그의 연구 영역은 물까지 뻗어 있었다. 제주 안에서 바깥을 보고, 그 바깥에서 제주를 보며 생활사를 기록해온 그다. 민속학자 고평민. 그가 이번엔 '동(東)의 생활사'를 냈다. 동해안에 접해있는 백두대간 동쪽을 중심으로 그곳에 살아가는 이들의 농업, 도구, 언어를 살폈다. 강원도 영동, 경북, 경남의 낙동강 동쪽 지역이 해당된다. 저자는 산과 바다, 논과 밭, 마을을 삶의 공간으로 삼아 살아가는 방식을 '원초경제사회'로 불렀다.

다. 원초경제사회 사람들은 산야에서 초목, 논과 밭에서 양식, 강과 바다에서 수산물물을 취하며 생계를 꾸려간다. 그들은 지역 풍토를 반영해 그에 적합한 갖가지 도구를 창조하고 계승해왔다. 이같은 생활공간에 맞춰 산야·전답·마을·갯밭·도구의 생활사를 적어 나갔다. 이 과정에서 멧돼지 사냥 과정, 소의 일생, 논거름과 밭거름, 미역밭 주인, 디딜방아, 대그릇과 쓰리그릇, 물동이 등이 등장한다. 제주와 얽힌 사연도 보인다. 울산과 그 주변 지역 어촌 마을 사람들을 통틀어 미역밭 생태와 제주 해녀들의 관계를 들여다봤다. 동해안에서 통나무배를 일컫는 '뿔가리'는 제주도 '뿔'와 비교해 탄생 배경을 짚었다. 저자가 고향 제주를 넘어 낯선 땅까지 누비는 이유는 한국의 문화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이 위치한 백두대간 서쪽에 철저히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국어사전에 식생활 도구였던 백두대간 동쪽 흥두개의 의미는 사라지고 의생활 도구인 백두대간 서쪽 흥두개만 살아있는 건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흥미만 해도 지역에 따라 각기 달랐지만 이른바 국가주의, 단일 민족주의의 영향으로 지금은 그 다양성이 함몰된 상태다. 그는 "한반도에서 살아온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활사 자취를 발굴하는 일은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고 했다. 한그루, 2만2000원. 진선희기자

# '불후의 고전'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한권에

## 다산연구회가 옮긴 '정선 목민심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한권에 담은 '정선 목민심서'의 개정판이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고전이지만 48권 16책의 방대한 분량과 어려운 내용으로 본편에 선택 손은 뻗지 못했던 이들에게 현 대적 문체와 새로운 번역으로 쉽게 다가간다. 한국 실학·다산학을 정립한 다산연구회가 세심한 관심으로 정수만을 길어 올렸다. 목민심서는 다산이 강진의 유배지에서 집필한 대표작으로, 지방 수령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원칙과 지침,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목민'(牧民)은 본디 소나 양을 돌보듯이 백성을 잘 보살피고 안녕한 삶을 누리도록 한다는 뜻이다. 다산이 살던 조선시대, 각종 병폐로 고통을 겪던 백성들에게 당장 필요했던 것도 이를 가까이에 있는 목민관의 도움이었다. 과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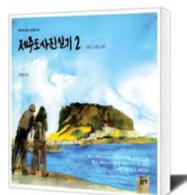
게 부과된 조세와 부역을 줄여주고, 중간에서 이익을 부당하게 가로채는 비리를 척결하고, 억울한 형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 같은 구제책이 시급했다. 이는 곧 다산이 이미 있는 법체계에 위에서 민생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목민심서를 써내려간 이유이기도 하다. 마음이 있어도 몸소 행할 순 없었기에 제목에 '심서'(心書)를 달았다. 조선 후기의 제도과 법령, 사례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분석한 구절에선 목민심서의 특징과 가치가 잘 드러난다. 환곡, 지방재정의 운영 방법 등 경제적인 사항부터 법령의 제정과 반포 현황, 그에 따른 백성의 피해 사례 등 어느 하나 소홀하지 않게 살폈다. 단순히 조선의 폐해한 사회상을 고발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 시대의 뿌리박힌 잘못과 옳지 못한 일에 대한 치밀한 조



사와 분석이 우선되어야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던 것이다. 목민심서는 옛 이야기를 통해 끝없이 오늘을 향해 질문을 던진 다. 이해가 충돌하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 자신의 직무상 본분을 다해야 하는 오늘날 모든 이들에게와 닿을 만한 목소이다. 우리는 과연 다산이 강조한 마음가짐으로 사회에서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을까. 시대를 초월해 살아있는 지성과 사회의식을 일깨운다. 창비, 1만8000원. 김지은기자

## 이 책 강경식의 '제주도 사진일기 2'

### 꽃과 풍경, 그 안에 스민 상처까지



그는 충북 지역 중·고교에서 35년간 교사로 근무했다. 2017년 2월 정년 퇴임한 뒤 그가 향한 곳은 제주였다. 성산포에 동지를 틀고 3년째 살고 있다. "젊은 때 필요한 세 가지는 시간, 자동차, 여행"이라는 강경식씨. 그가 애써 '제주도(島)'로 부르는 이 섬에 살며 틈틈이 찍어둔 사진과 일기를 모아 책을 묶었다. '실렘과 여행'이란 부제를 단 '제주도 사진일기'다. 지난해 1권을 출간했고 이번에 2권을 냈다.

'제주도 사진 일기'는 말 그대로 그가 써나간 일기에 사진을 더해놓은 사진 에세이다. 제주 여행자와 사진가를 위한 사진촬영 안내서로 제주 여행객의 트래킹 선호도, 관광지 순환버스 정류장과 시간 표, 도로명, 도로 지도 등에 대해 이 땅을 직접 밟로 디디며 확인한 정보가 촘촘하다.

"보름과 그믐 사리 때가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지고 푸른 돌계단이 많이 드러나 광치기 해변의 해돋이 촬영에 유리할 것 같지만, 이때는 간조 시각과 해돋이 시각이 비슷하지 않아 아름다운 해돋이 촬영에는 한계가 있다." 상현과 하현인 조금 때가 간조와 해돋이 시각이 같아지는 시기여서 광치기 해변 해돋이 촬영에 적기라는 건 경험을 통해 얻은 결과다. 책에서 본 '지식' 보다는 현장을 누비며 길어올린 사연을 소개하며 독자들을 제주로 이끈다. 봄에서 겨울까지 사계절을 순서대로 따라가는 그의 사진 스케치는 매화에서 시작해 동백, 시리니굴길, 산수국, 한라산둘레길, 문주란, 수크령, 단풍, 동쪽의 해돋이, 오조포구, 백록담 등으로 이어진다. 사진으로 그려낸 풍경 사이에 지나는 삶에서 배우고 깨달은 이야기들이 일기로 담겼다. 그가 그쳐 아름다운 자연에만 눈길을 둔 건 아니다. 70주년 제주4·3추념식, 2018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 등 깊은 상처를 통해 제주를 들여다보는 장면도 있다. "걷는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서로 충돌하며, 결국 한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행동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걸기를 계획할 때만은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다. 그래서 걷나 보다." 작년 8월 4일, 생명평화대행진 여섯째날 써놓은 일기다. 좋은땅, 1만7000원.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축**

**취 임**

**사단법인 한국몽골학회 이사장**



**오 영 주**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사단법인 한국몽골학회 이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부모·형제일동**

**축**

**수 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양 성 운**  
(분회 역대회장)

2019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장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애월읍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 이 상 철 외 지도위원일동

**축**

**수 훈**

**새마을훈장 노력장**



**변 봉 남**  
(새마을지도자 서귀포시협의회 회장)

2019년 새마을운동 유공 정부포상 새마을훈장(노력장) 수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자연보호서귀포시협의회 서귀포지회  
회장 백 상 학 외 회원일동

**축**

**취 임**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 제23대 회장**



**강 은 숙**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 제23대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동부경찰서 생활안전연합회**  
회장 김 경 철 외 회원일동